

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, 양주시 집수리 봉사

[박정호]

직원 20여 명 참여, 홀몸 어르신 댁 창호·문 교체 등 나서

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 추석을 앞두고 경기 양주시 남면 일대 노후 가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.



▲ 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

파주시사는 지난 17일 '농어촌 집 고쳐주기'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사가 꾸준히 이어온 사업으로, 다솜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손질이 필요한 노후주택을 정한 뒤 개선 작업을 벌여왔다.

봉사에는 파주시사 소속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홀로 지내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자택을 찾아 낡은 창과 문을 새로 달고 마당 주변을 정리하는 등 몸을 써야 하는 궂은일을 맡아 구슬땀을 쏟았다.

전홍성 지사장은 "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개선된 주거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뜻깊다"며 "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현장 중심의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